

국정뉴스



문재인 대통령, 9월 22~26일 UN 총회 참석

문 대통령 기조연설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3박 5일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 24일(한국시간 25일) 제74회 UN총회에 12번째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UN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국제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밝히는 시간도 가지며 “한국이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하기에 앞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성료

서울시, 24년 만에 종합우승 확정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등 69개 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리에 폐막했다. 전국체전은 1920년 서울 배재고보에서 열린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초로 100회째를 맞았다.

서울시가 금메달 128개 종합점수 7만 7331점으로 24년 만에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이 확정됐다.

이번 전국체전은 풍성한 기록과 역대 최대 규모의 성화 봉송, 올림픽 규모의 개회식 등으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총 47개 종목 1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 해외동포 선수단 등 약 3만 여 명이 참가한 만큼 신기록도 쏟아졌다.

주거

한국자유총연맹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72
☎ (070)7122-8057

◆시·도지부 연락처

서울 (02) 849-7871
부산 (051) 808-7960
대구 (053) 621-9880
인천 (032) 868-0113
광주 (062) 672-5004
대전 (042) 242-7601
울산 (052) 276-4400
세종 (044) 865-4522
경기 (031) 235-6166
강원 (033) 254-6670
충북 (043) 253-7770
충남 (041) 881-6045
전북 (063) 252-1797
전남 (062) 654-2340
경북 (054) 973-6312
경남 (055) 282-2332
제주 (064) 751-0191

자유칼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위해 자주적 안보 역량 강화해야



전인범 |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전 육군 특전사령관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핵무기를 갖고 있는 유일한 국가였다. 미국은 핵무기만 있으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으며 재래식 군대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소위 ‘전문가’들도 많았다.

심지어 1945년 미국은 89개의 보병사단이 있었는데 1950년에는 10개로 축소했다. 그런 가운데 소련이 이미 간첩을 침투시켜 핵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마침내 1949년에 핵 실험에 성공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미국은 한국에서 철수했다. 북침을 우려

한 미국은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요청을 묵살했다. 이렇듯 미국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다만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미국의 실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자주국방력을 키우지

하여금 남한은 미국의 관심 밖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스탈린과 김일성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6·25전쟁은 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김일성과 이를 적극 후원한 소련 스탈린의 책임이 제일 크지만 한편으로 이들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미국의

‘애치슨 라인’ 북한과 소련의 오판 불려
전쟁 없는 나라 위해 안보의식 강화 필요

않고 미국만 믿으면 안 되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배신한다기보다는 오판의 결과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49년과 1950년에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에서 오판과 실수를 많이 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했고 우리에게 충분한 무장을 제공하지 않았다. 애치슨 라인을 발표해 소련과 북한으로

오판과 실수는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당시 우리나라 군사력의 허약함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자주국방력을 강력하게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방이지만 오판과 실수를 할 수 있는 우방이다. 지금은 절대로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 같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무슨 일이 일

어날지는 모른다.

내년이면 6·25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7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는 몰라보게 발전했다. 전반적인 국력과 군사력 또한 6·25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유해지고 강해졌다. 그러다 보니 나라 곳곳에서 지난날의 전쟁을 잊어버린 듯한 모양새가 종종 나타난다. 6·25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쟁에 대한 간접 체험을 통해서라도 전쟁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꼭 군대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